

‘차포 떼고도’…KIA, 내부FA 협상 지지부진

최형우이적가시화속 ‘프랜차이즈스타’ 양현종마저 장기화 조짐

“속도 더디지만 테이블은 유지”…구단 ‘신중 기조’ 유지
전력·상징 둘 다 걸린 협상…‘최소지출’ 기조 팬심 불안
주축 연쇄 이탈 중심축 흔들, 스토브리그 불확실성 증폭



프로야구 KIA 타 이거즈의 내부 FA 협상이 연이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팀의 구심점이자 상징인 최형우와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시선은 양현종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 재계약까지 결코 순탄한 길에 예상되지는 않는다.

KIA 구단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속도는 더디지만 테이블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현종 선수의 필요성이나 평가에 변화는 없다. 프랜차이즈 스타인 만큼 구단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를 핵심 전력으로 평가하는 기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협상의 진척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붙잡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논의는 이어지고 있으나, 이견 조율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양현종은 올 시즌 30경기에 등판해 7승 9패, 평균자책점 (ERA) 5.06을 기록했다.

표면적인 성적은 아쉬웠지만, 팀 내 두 번째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선발진을 지켰다.

11차례 퀄리티스타트 (QS)를 기록했고, 꾸준함과 경기 운영 능력은 후배들에게 기준점이 됐다.

통산 탈삼진 1위, 최다 이닝 2위, 최다승 2위에 오른 그는 KIA의 역사와 직결되는 존재다. 단순 연장 계약이 아니라 팀의 정체성과 연결된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KIA의 오프시즌 기조다.

내부 FA 6명, 2차 드래프트, 연봉 조정, 아시아 쿼터, 외국인 구성까지 다양한 과제가 겹친 상황



중심타자 최형우의 이적이 가시화된 가운데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종의 FA 계약마저 늦어지면서 올 시즌 KIA의 행보에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에서 구단은 ‘제한된 예산’ 속에서 움직였다.

지금까지의 행보도 적극적인 투자보다 최소 지출에 맞춘 대응에 가깝다.

실제로 내부 FA 중 재계약한 선수는 불펜 이준영 1명뿐이다. 박찬호와 한승택의 이적은 자본과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형우와 양현종은 다르다.

두 선수는 전력과 상징을 모두 갖춘 구단의 열골이다. 다른 선수들과는 차원과 명분이 다르며,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논의가 예산 문제로 흐트러지면서 “구단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 아니냐”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최형우의 테이블이 보여줬듯, 이번 협상도 가벼운 선택이 아니다. 팀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는 가운데 양현종의 거취는 향후 운영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잇따른 주축 이탈에 팬심은 더욱 요동치고 있다. 최형우 이탈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와중에 양현종의 국면까지 길어지자 “팀의 중심이 연달아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전력과 상징성이 동시에 약해지면서 팬들의 피로감도 깊어지고 있다. 스토브리그 전반을 감싼 불확실성 탓에 이번 겨울의 파장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주홍철 기자

광주시청 근대5종 전용태 ‘화려한 귀환’

2026 AG 국가대표선발전 1위 ‘AG3연패 도전’…전남도청 서창완·김영하 2, 4위로 태극마크

한국 근대5종 ‘간판 스타’ 전용태(광주시청)가 화려하게 부활했다.

전용태는 지난달 30일 부산체육관에서 폐막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경기대회 근대5종 2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천567점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1차 선발전에서도 5종목 합계 1천568점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던 전용태는 1, 2차 선발전 성적을 각각 50% 비율로 합산한 결과 남자부 1위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3년 열린 항저우 대회에서 아시안게임 2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며 남자 개인전 최초의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던 전용태는 내년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 3연패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근대5종에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안겼던 전용태는 파리 올림픽에서는 6위에 자리했다.

전용태는 승마가 장애물 경기로 대체된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면서 올해는 국가대표로는 뛰지 않았다.

전남도청 서창완과 김영하는 각각 2위와 4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경기대회 근대5종 국가대표 1, 2차 선발전에서 남자부 1위를 차지한 전용태(왼쪽)와 2, 4위로 태극마크를 단 서창완, 김영하.

를 차지하며 국가대표에 합류했다.

서창완은 1차에서 1천559점으로 4위, 2차에서 1천571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김영하는 1차 1천564점으로 3위, 2차 1천558점으로 4위를 기록 상위 4명에게 주는 아시안게임 출전 티켓을

얻었다.

전용태와 서창완, 김영하는 대한근대5종연맹이 주관하는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합류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전남 복싱 미래’ 김호한·이승민, U-17 국가대표 선발

전남 복싱 유망주 김호한(전남체육중), 이승민(곡성중)이 U-17 주니어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김호한과 이승민은 지난달 30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2026 U-19·U-17 국가대표 선발전대회’에서 54kg급과 75kg급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내년 국제무대에 출전하는 대표선발전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중·고등부 최고 유망주들이 대거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전국 규모 대회다.

2025년 대한복싱협회장배복싱대회 동메달리스트 김호한은 허석황(울산 챔피언스)과의 결승전에서 침착한 거리 조절과 정교한 스트레이트 공격을 앞세워 판정승을 거뒀다.

올해 제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미들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이승민은 결승에서 성유찬(경기 포곡중)을 상대로 거침없는 공격과 탄탄한 방어 기술을 선보이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2026 U-19·U-17 국가대표 선발전대회’에서 54kg급과 75kg급 우승을 차지하며 국가대표에 선발된 김호한(왼쪽)과 이승민.

특히 곡성스포츠클럽에서 복싱을 시작한 이승민은 클럽 출신 선수로는 드물게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쾌거를 이루며 지역 클럽 육성의 성과를 입증했다.



나란히 태극마크를 단 김호한과 이승민은 국가대표 합숙훈련에 참여해 대한민국 복싱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기량을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지난달 29일 열린 ‘제1회 광주FC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유치부 경기 모습

<광주FC 제공>

광주와 호흡하다…축구로 꿈을 꾸다

‘제1회 광주FC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성료

프로축구 광주FC가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한 ‘제1회 광주FC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달 2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페스티벌에는 500여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참가해 뜻깊은 추억을 만들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번 행사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평소 선수단이 사용하는 광주축구전용구장을 개방해 어린이들이 천연잔디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사했다.

페스티벌에는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총 24개 팀이 참가했으며, 별도의 순위를 집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쟁보다 화합과 즐거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푸드트럭, 게임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함께 운영돼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축제의 장을 조성했다. 이후 참가한 모든 어린이에게 기념 메달과 기념품을 제공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박희중 기자

이창호 ‘1천969승’…스승 조훈현 넘어 최다승

‘영원한 바둑황제’ 이창호(50) 9단이 마침내 한국 바둑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했다.

수도도시 원주의 주장인 이창호는 1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25 인크레디웨어 레전드리그 플레이오프(PO) 2차전에서 GOGO 양양의 3지명 김수장 9단에게 159수 만에 흑 불계승했다.

이로써 통산 1천969승(1무 814패)째를 수확한 이창호는 스승 조훈현 9단이 보유했던 종전 최다승(1천968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만 11세이던 1986년 8월 프로 입단한 이창호는 조영석 초단(이하 당시 단)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뒤 2000년 10월에는 안조영 6단을 꺾고 1천승을 수확했다.

2010년 1월 최철한 9단을 상대로 1천500승을 달성한 이창호는 2021년 2월 1천800승(상대 한웅규 7단), 2024년 9월 1천900승(상대 유창혁 9단) 고지에 차례로 오른 뒤 대망의 최다승 기록



역대 최다승 1위에 오른 이창호 9단 <한국기원 제공>

을 경신했다.

전날 타이 기록에 이어 하루 만에 최다승을 경신한 이창호는 “지금까지 많은 대국을 해왔지만 이렇게 뜻깊은 기록을 세우게 돼 영광스럽다”며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바둑을 지금까지 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